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훌륭히 완공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발전소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전체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1 면에서 계속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증시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시며 우리 청년들이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칼바람에 뜻을 달고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으로서의 위용을 더 높이 펼쳐가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던져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영웅청년 돌격대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발전소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백두청춘들의 애국충정의 땀방울과 위훈을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가장

값높이 빛내어주시고 백두산청년강국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필승의 보증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을 끝없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적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년대와 세기를 이어 빛내이며 조선청년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파시해갈 신념의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직히 열화하고 같은 애국충정과 영웅적투쟁정신, 창조적지혜와 불같은 열정으로 발전소완공의 날을 안아온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레프를 끊으시었다.

준공식장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백두대지의 푸른 하늘가를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당중앙을 옹위하여 성세, 방패를 이룬 청년대군의 모습, 하늘에 닿은 조선청년들의 기상인양 웅장하게 솟아오른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연제앞에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언제나 주체혁명의 성지를 더욱 빛내이는 보람찬 전투에서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의 위력을 떨쳐가는 백두청춘들과 함께 계시였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로 자라나도

록 뜨거은 사랑과 믿음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던져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애국의 피더운 심장으로 만년을 과감히 뚫고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발전소건설을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관찰하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드리는 가장 큰 로력적선물을 마련한 건설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를 일떠세운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금방식에 얹혀 금지높이 내세워주시며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의 광란을 물리치며 우리 당의 청년증시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한 발전소건설자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어 우리 청

년들의 애국충정의 피와 땀, 영웅적위훈의 결정체이며 증견자인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연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백두대지의 산발들에 울음이 메아리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70년 역사는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맹장들로 키운 역사임을 만천하에 파시한 백두청춘들이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이 펼치는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전구마다에서 더욱 용감하게, 대담하게, 질풍같이 전진해나감으로써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